

이성교제의 경험, 애정관계 행동 및 성인 애착 차원간의 관계*

장 재 홍[†]

중앙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 및 현재의 이성교제 경험수준을 애정관계를 방해/촉진하는 애정관련 행동 단위들로 분석해 보고, 이러한 애정관련 행동들과 성인 애착차원간의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20세에서 42세까지의 미혼 남·여 392명이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이성교제 경험에서, 이성교제 경험이 전혀 없거나 매우 짧은 교제만을 경험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호감표현 및 파트너에 대한 신뢰는 더 낮고 친밀감불편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 이성교제 수준에서 '배정확인 후 사랑' 집단은 '배정확인전' 집단과 '배정확인 후 갈등' 집단에 비해 보살핌, 신뢰 등의 애정관계 촉진행동은 더 높지만 높은 보상성과 긴장·위축은 더 낮았다. 그리고 '배정확인 후 갈등' 집단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 공격행동과 집착이 더 높았다. 셋째, 애정관계 행동의 보살핌, 친밀감불편은 회피차원과, 긴장·위축은 불안차원과, 호감표현, 집착, 신뢰 행동은 불안 및 회피차원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이성교제 경험, 애정관계 행동, 애착차원, 회피, 불안

* 이 논문은 2005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교신저자 : 장 재 홍,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Tel : 02-820-5169, E-mail : jangjh@cau.ac.kr

청소년 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성교제 행동은 '친밀감 형성'이라는 발달적 과업을 완수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심리적 발달과 개인의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성교제는 열정적 사랑에서처럼 유희적 기능, 장래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남녀관계에 대한 규범·역할·가치관을 습득하는 사회화 기능, 그리고 이성과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고 헌신과 책임을 공유하는 등 인격 성숙에 기여한다(송명자, 1995; Rice, 1999). 또한 애정관계가 심리·신체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Kemper & Bologh, 1981; Reis, 1984)에 따르면, 애정관계가 잘 진전될 경우 정신·신체적 측면에서 행복감, 안녕감을 경험하지만, 심한 갈등을 경험할 경우 다양한 신경증적 장애들과 피부상의 문제들을 일으킨다. 그리고 전혀 이성과 애정관계를 맺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애정관계 경험이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자주 감기 등의 신체적 질병에 걸리며, 최근 연인에게서 이별을 통보받은 사람들은 수면문제, 두통 등의 신체적 질병, 정서상의 통제력 상실 등의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홍대식, 1993, p332 재인용).

이러한 이성교제는 그동안 다양한 연구접근들에 의해 조망되어 왔다.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애착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동기에 형성된 애착 유형이 어떻게 성인기의 대인관계들에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기 위해 성인애착과 이성교제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를 수행하였다. 일군의 사회심리학자들은 애정관계라는 이자관계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랑의 구성요소와 유형, 배우자 선택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수행하였다(홍대식, 1996, 2000; Davis & Latty-Mann, 1987; Hendrick & Hendrick, 1989; Sternberg, 1986). 그리고 상담 및 임상심리학자들은 데이트 폭력, 강박적 집착, 사회적 불안 등 이성교제에서 나타나는 병리적인 행동들에 대한 연구(장희숙, 조현각, 2001; Feeney & Noller, 1990; Hindy, Schwarz & Schwartz, 1994; Wenzel, Graff-Dolezal, Macho & Brendle, 2004)를 수행하였다.

이성교제의 개시와 유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회심리학자들의 연구주제였다. 이성교제의 개시에 대한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대인매력 요인과 관련이 있는 물리적 근접성, 친숙성, 신체 매력, 유사성 등의 변인이 탐색되었다. 그리고 이성교제의 유지 및 파탄은 개입, 만족, 애정, 유사성, 갈등, 사회적 규범, 사회교환변인들, 성격요인들, 성관계의 유무 등의 요인들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홍대식, 1998에서 재인용). 한편 홍대식(1998)의 우리나라 남녀 대학생에 대한 연구에서, 데이트 상대자 수와 관련된 변인은 첫 데이트 당시의 연령, 이성에 대한 사회성, 이성관계의 사고기술과 방법의 숙지도, 이성교제의 의사전달을 받은 정도, 이성교제가 가능한 상황의 유리성, 이성에 대한 사회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성교제의 지속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파트너와의 조화성, 비교수준(관계에 대한 긍정적 기대), 그리고 사회교환변인과 관련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는 이성교제의 개시 및 유지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성교제와 관련된 사회적, 동기적, 정서적, 인지적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도록 해준다. 하지만, 이성교제를 하는 당사자의 행동적 측면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

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애정관계의 개선을 원하는 사람에서 어떠한 행동들이 문제이며,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 혹은 정신건강 장면에서의 정보 활용정도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성교제에는 동기와 신념들 그리고 행동 차원들이 모두 함께 관여되겠지만, 이 중 행동차원은 애정을 확인하고 유지 발전시키는데 가장 직접적인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이현수(2001)에 따르면, 특정인에 대한 태도라는 것은 3개의 구성요소 - 신념, 정서, 행동 - 로 이루어지는 바, 이 중 명확히 관찰 가능한 요소는 행동요소이며, 태도는 관찰된 행동의 총화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였다(이현수, 2001, p.298-299). 마찬가지로 Maxwell(1985)은 사랑은 하나의 정서인 동시에 하나의 행동으로, 서로 주고받는 애정 행동을 통해 사랑의 정서가 전달되고 느껴지게 된다고 애정관계 행동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성교제의 개시 및 유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들은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것은 아마도 이성교제 상황이 결혼 관계처럼 안정적인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종결될 수 있는 불안정하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관계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Loyd & Cate, 1985). 또한 이성교제는 특정 파트너에 대한 호감정도, 이성교제의 단계 등 여러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매우 가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애착연구의 발전에 따라 가변적인 속성보다 일관적인 속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

Hazan과 Shaver(1987)가 아동기 부모와의 관

계에서 형성된 애착양식이 성인기 애정관계에서도 지속된다고 처음으로 경험적 연구를 발표한 이후, 성인의 다양한 애정행동들을 애착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지속되어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애착유형과 매력간의 관계(Frazier, Byer, Fischer, Wright, & DeBord, 1996; Kirkpatrick & Davis, 1994), 애착유형과 정서조절양식(이귀선, 정남운, 2003; Bartholomew, 1990; Feeney, 1995, 1999), 애착과 갈등 및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김광은, 2004; Kobak & Hazan, 1991; Kobak & Dummmler, 1994), 애착과 결혼만족도(김광은, 2005; Feeney, 1994; Kirkpatrick & Davis, 1994) 등 다양한 애정관련 행동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이렇듯 애착에 대한 연구가 인기를 끌게 되는 이유를 Fraley와 Shaver(2000)는 애착이라는 한 틀로서 성인의 애정관계 발달, 유지, 이별 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성격발달, 정서 조절, 정신병리에 대한 새로운 조망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편, 성인애착이론은 불과 20여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발전과 진화를 거듭해왔다. 이러한 애착이론의 발달은 크게 3가지 모형의 출현 - 3 범주모형, 4 범주모형, 애착의 차원모형 - 과 관련을 맺고 있다. 성인애착연구의 선구자인 Hazan과 Shaver(1987)는 Ainsworth(1982)가 아동기 애착유형으로 언급했던 안정형, 회피형, 불안/양가형이 성인기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남을 보고하면서 성인애착의 3 범주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안정형(secure)은 파트너와의 관계를 친밀하고 행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지각한다. 반면, 불안/양가형(anxious/ambivalent)은 질투심이 많고 파트너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며 정서적 변동이 심하다. 그리고 회피형(avoidant)은

친밀감을 두려워하고 파트너를 신뢰 의지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Hazan과 Shaver(1987)의 3 범주모형이 제안된 이후 이 모델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일례로,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Hazan과 Shaver가 언급했던 회피형에 실제로는 서로 상이한 두 가지 유형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Hazan과 Shaver의 회피형 내에는 파트너에게 상처를 받거나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회피전략을 사용하는 유형(Batholomew의 두려움형)과 자기-신뢰감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회피전략을 사용하는 유형(Batholomew의 무시형)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동일하게 회피전략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회피의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3 범주모형 대신에 안정형, 두려움형, 무시형, 몰두형의 4 범주모형을 제안하였으며, Bowlby의 내적작동 모형(internal working model)을 보다 정교화 하는데 공헌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Bowlby(1973)는 내적 표상 또는 작동모형으로 ① 애착대상은 지지와 보호를 요청했을 때 반응할 사람인가 ② 자기는 애착대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자기와 타인에 대한 표상으로 제안했지만, 구체적으로 자기와 타인의 표상에 대해 범주화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자기와 타인 표상을 각각 2 수준으로 구분하고 이 셀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기술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자신이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의 여부와 타인이 신뢰할 수 있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존재인가 여부에 따라 2x2의 구조가 형성된다. 그리고 이 두 차원(자기와 타인의 표상에

따라 4 가지 애착유형들이 배치될 수 있다. 즉, 안정형은 자신과 타인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며, 무시형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지만 타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다. 몰두형은 타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자신은 사랑받을만한 가치가 없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두려움형은 자신도 무가치하고 타인도 자신을 돕거나 사랑하지 않을 것으로, 자신과 타인 모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다.

한편, 애착을 3 범주나 4 범주와 같은 범주로 접근하기보다 연속적 차원들로 고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이 있다. 일례로, Levy와 Davis(1988)는 3 범주모형에서 안정형과 회피형 간의 부적상관이 안정형과 불안양가형 간의 부적상관보다 상관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에 착안하여 애착의 2 차원 구조를 제안하였고, 이후 범주적 접근과 차원적 접근간의 논쟁이 가속화 되었다(Brennan & Shaver, 1995; Collins & Read, 1990; Fraley & Waller, 1998; Griffin & Bartholomew, 1994). 애착척도의 기저에 연속적인 차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차원적 접근을 선호하는 연구자들은 심리측정적 의미에서 그리고 애착이라는 개념적 의미에서 차원적 접근이 범주적 접근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Fraley와 Waller(1998)는 성인 애착의 자료 값들이 범주적 모형보다 차원적 모형과 더 일치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Brennan, Clark 및 Shaver(1998)는 성인애착을 측정하는 거의 모든 검사들로부터 문항을 추출하여, 323 문항의 새로운 애착검사를 제작하여 실시해본 결과, 기존의 모든 애착척도들에서 공통적으로 두 가지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이 요인들을 회피(avoidance)와 불안(anxiety)이라 칭하였다. 그들

에 따르면, '불안'은 거절과 버림받는 것을 경계하는 차원이며, '회피'는 파트너와 가까워지거나 의존하는 것에 대한 불편, 혹은 타인과 친밀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차원이다. 그들은 3범주든 4범주든 상관없이 회피와 불안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성인애착의 유형들이 연속적인 차원에서 개념화 될 수 있다고 하였다.

Fraley와 Shaver(1998)에 따르면, 불안은 애착대상에 신체적 혹은 심리적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 그 대상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일 가능성을 탐지하는 것으로, 거절과 유기에 대한 식역(threshold)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안정형은 거절과 유기에 대한 식역이 높아서 사소한 거절 단서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몰두형은 그 식역이 낮아서 사소한 단서에도 버려지는 공포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회피'차원은 애착대상에 접근 혹은 도망가는 행동조절체계로, 회피가 낮은 사람은 애착대상 지향적 행동(예, 접촉이나 지지를 구한다)을 하며 회피가 높은 사람은 애착대상 철수적 행동(예, 애착대상과의 접촉을 피하거나 혼자 이겨내려고 한다)을 한다. 또한 Fraley와 Shaver(2000)에 따르면, 회피와 불안차원은 상호 독립적으로 작동하는데 불안이 활성화되더라도 회피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불안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회피전략이 사용될 수 있다(예, 파트너가 거절 징후를 보이지 않았는데 복종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그리고 불안은 시간에 따라 쉽게 변하는 것이지만 회피는 보다 일관적인 행동전략이며, 불안은 외적으로 드러난 행동의 강도와 매우 관련이 높지만 회피는 행동의 강도와 관련이 적다고 한다.

한편, 이렇듯 애착을 기저의 회피, 불안차원과 같은 정서적 행동적 조절로 해석하려는 연

구자들(Fraley & Shaver, 1998, 2000)은 이러한 연구방법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애착차원을 이용할 경우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보다 정교화하고 확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시형은 이성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이 가치 없으며 파트너의 도움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파트너가 거절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에는 타인에 대한 투자, 자기-충족성, 거절에 대한 공포와 같은 많은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복잡한 믿음을 친밀감에 대한 회피차원으로 단순화한다면 내적 작동모델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신념들을 연구할 여지가 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애착차원으로 애정관계 행동을 보다 정교히 연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Fraley와 Shaver(1998)의 여성에 대한 연구에서 불안에서의 개인차는 분리불안과 관련이 높았지만 회피에서의 개인차는 실제적인 행동전략과 더 관련이 높았다. 즉, 파트너와의 분리에 대해 불안을 느낄지라도 친밀감을 편안하게 느끼는 여성들은 자신의 파트너와 접촉하여 편안을 얻으려고 하였다. 이것은 여성의 애정행동들이 회피와 불안차원에 의해 보다 정교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상술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이성교제 경험을 구체적인 애정관련 행동 용어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은 상담에서 이성과의 관계개선을 원하는 사람에서 자신의 어떠한 행동들이 문제이며,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담 장면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애정관련 행동들과 애착차원간의 관련성을 탐색함으로써 이러한 애정관계행동들의 기

본적 특성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성교제 경험을 애정관련 행동에 따라 분석해 보고, 애착의 차원적 접근을 도입하여 애정관련 행동들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한편, 최근까지 애착과 애정관계 행동 간의 관계는 포괄적으로 이해되기 보다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단편적으로 이해되어 왔다. 예를 들어,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애착유형과 정서 조절양식(이귀선, 정남운, 2003; Bartholomew, 1990; Feeney, 1995, 1999), 갈등 및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김광은, 2004; Kobak & Hazan, 1991; Kobak & Duemmler, 1994), 이성관계 만족(김광은, 이위갑, 2005; 이복동, 2000; Feeney, 1994; Kirkpatrick & Davis, 1994), 사랑스타일(정태연, 최상진, 강진경, 2000; Levy & Davis, 1988), 데이트폭력(Bookwala & Zdanjuk, 1998), 강박적 집착(Hindy & Schwarz, 1994; Feeney & Noller, 1990), 보살핌행동(이은정, 2001) 등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최근 애정관계 행동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가 국내에서 권희경, 장재홍, 권영민(2005)에 의해 시도되었다. 그들은 미혼 남녀와의 면접과 이성교제에 대한 기존연구 고찰을 통해 결혼 전 이성교제를 촉진 혹은 방해하는 8 가지 행동요소들을 평가하는 애정관계 행동척도(Romantic Relationship Behavior Scale)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8개 하위요인들 - 보살핌, 긴장·위축, 공격행동, 친밀감불편, 집착, 호감표현, 높은 보상성, 신뢰 - 을 측정하는 총 52문항의 척도이다. 그들에 따르면 이 척도는 성인애착의 유형을 잘 설명하고 있으며, 이성교제 만족도와 높은 상관을 보이지만 대인관계 문제점사와는 중간정도의 상관을 보이는 등 이성교제 시의 행동들을 예민하

게 측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현재의 이성교제 경험 수준에 따라 애정관계 행동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한다.

둘째, 8가지 애정관련 행동들과 회피 불안의 성인 애착차원간의 관계성을 탐색한다.

방 법

연구 대상

연구자는 서울 경인지역의 미혼 남녀 총 515명에게 설문지를 의뢰하였고 이중 410 개 자료를 수거하였다. 그리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명된 28개 자료를 제외시키고 총 392개의 자료를 최종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중 남성은 144명(36.7%), 여성은 248명(63.3%)이었으며, 남성의 평균연령은 28.12세, 여성의 평균연령은 25.21세였다. 응답자의 직업은 학생 141명(36.0%), 사무직원 118명(29.9%), 초·중·고 교사 40명(10.1%), 기능원 14명(3.6%), 상담·보건교사 7명(1.7%), 회계사 2명(0.5%), 사서 2명(0.5%), 법률전문가 1명(0.3%), 기타 63명(16.1%)이었다.

측정 도구

성인 애착차원

애착차원을 측정하기 위하여 Griffin 과 Bartholomew(1994)가 제작한 대인관계질문지(Relationship Scales Questionnaire; RSQ)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Griffin과 Bartholomew(1994)가 Hazan과 Shaver(1987)의 애착척도, Bartholomew

표 1. 연구대상의 연령, 학력, 직업의 빈도와 비율

연령 빈도(%)	학력 빈도(%)	직업상태 빈도(%)	직업 빈도(%)
20-23 117(29.6)	고졸 9(2.3)	정규직 169(42.8)	사무직원 118(29.9)
24-27 126(31.9)	대재 141(35.7)	계약직 46(11.6)	초중고 교사 40(10.1)
28-31 108(27.3)	대졸 119(30.1)	시간제 39(9.9)	기능원 14(3.6)
32-35 34(8.0)	대학원재 58(14.7)	학생 141(35.7)	상담/보건교사 7(1.7)
36이상 10(2.5)	대학원졸 62(15.7)		회계사 2(0.5)
			사서 2(0.5)
			법률전문가 1(0.3)
			학생 141(35.3)
			기타 63(16.1)

와 Horowitz(1991)의 성인애착 질문지, 그리고 Collins와 Read(1990)의 애착문항을 참고하여 제작한 30문항, Likert 식 5점 (1='전혀 그렇지 않다', 2='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다소 그렇다', 5='매우 그렇다') 질문지이다. 이 질문지는 성인 애착의 4범주 유형과 불안, 회피 애착차원을 측정한다. 국내에서는 이귀선과 정남운(2003), 정연옥과 이민규(2005)가 이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그들은 애착의 4유형에 대한 내적 합치도 범위를 각각 $\alpha=.41$ 에서 $\alpha=.63$ (정연옥과 이민규, 2005), $\alpha=.51$ 에서 $\alpha=.76$ (이귀선과 정남운, 2003)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Griffin과 Bartholomew(1994)는 RSQ가 불안, 회피 애착차원을 적절하게 측정한다고 하였으며, 이 차원들에 대한 문항의 내적 합치도를 각각 회피 .75, 불안 .82로 보고하였다. 또한 Kurdek(2002)은 확정적 요인분석을 통해 RSQ의 구조를 반복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이 척도가 불안과 회피를 적절히 측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Griffin과 Bartholomew(1994), 그리고 Kurdek(2002)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30문항 중 불안과 회피차원을 측정하는 13문항을 뽑아 애착차원을 측정하였다. 회피차원의 측정에는 10(역문항), 12, 13, 15(역문항), 20, 24, 29, 30(역문항) 문항이 사용되었으며, 불안차원의 측정에는 11, 18, 21, 23, 25 문항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회피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 $\alpha=.670$ 이었으며, 불안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 $\alpha=.767$ 이었다.

이와 더불어 연구자는 Kurdek(2002)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피, 애착차원에 대한 확정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정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로 $\chi^2=216.82$, $df=53$, $\chi^2/df=4.091(p<.01)$, CFI=.890, NFI=.864, RMSEA=.076 값을 얻었다. 이러한 값들로 볼 때, 이 모형은 아주 양호한 적합도로 보긴 어렵지만 비교적 적절한 모형 적합도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애정관계 행동

이성교제의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권희경, 장재홍 및 권영민(2005)이 개발한 애정관계 행동척도(Romantic Relationship Behavior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인의 친밀한 연인관계 형성을 촉진 혹은 방해하는 8가지 행동차원들 - 보살핌, 긴장·위축, 공격행동, 친밀감불편, 호감표현, 집착, 높은 보상성, 신뢰 -

을 측정하는 52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보살핌'은 파트너가 어려움에 처했거나 힘든 상황일 때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 혹은 심리적인 지지와 위로를 주는 행동들로 7문항으로 측정된다. '긴장·위축'은 이성 파트너에 대해 필요이상의 긴장과 위축감을 느끼는 것으로 7문항으로 측정된다. '공격행동'은 갈등상황에서 상대방을 공격,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행동을 측정하는 7문항이다. '친밀감불편'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표현하거나 가까워지는 행동을 불편해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5문항으로 측정된다. '호감표현'은 상대방에게 관심과 호감이 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행동을 측정하는 7문항으로 측정된다. '집착'은 파트너에 대한 사랑을 잠시라도 느끼지 못할 때 불안해하고 계속 사랑을 확인하려는 행동들로, 7문항으로 측정된다. '높은 보상성'은 자신이 갖지 못한 속성을 파트너가 가지고 있기를 과도하게 기대하는 행동으로 6문항으로 측정된다. '신뢰'는 파트너가 자신을 사랑하는가 혹은 자신을 속이지는 않는가와 같은 관계에서의 신뢰정도를 측정하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Likert 식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다소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소의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들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Cronbach α*=.793 이었으며, 8개의 하위 요인들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α*값은 보살핌 .539, 공격행동 .621, 긴장·위축 .539, 신뢰 .840, 호감표현 .805, 집착 .725, 친밀감불편 .755, 그리고 높은 보상성 .660의 신뢰도를 보였다.

이성교제 경험의 평정

연구대상의 이성교제 경험 수준을 평정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이성교제 경험에 대한 질문지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2개 범주 총 12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이성교제를 하는지의 유무에 따라 둘 중 하나의 범주에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질문지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질문지를 구성한 후 3명의 상담전문가(남자 1명, 여자 2명)에게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도록 의뢰하였고, 문구에 대한 수정을 거친 후 최종 질문지로 사용하였다.

과거 이성교제 경험 수준은 3집단으로 나뉘어졌는데,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집단'은 ① 예나 지금이나 이성에 대한 관심이 적다 ② 최근 1-2년 동안 내가 원하지 않아서 이성교제를 시도하지 않았다 ③ 짝사랑만 하고 실제로 이성교제를 한 적은 없다 ④ 이성교제를 원했지만, 최근 1-2년 동안 이성과의 교제가 전혀 없다 에 응답한 집단이다. '일시적 교제 경험집단'은 ① 이성과 거의 한 두 번 만난 후, 이성 관계가 더 지속되지 않는 편이다 ② 한 명의 이성과 서너 번 만나기는 하지만, 관계가 더 지속되지 않는 편이다 ③ 한 명의 이성과 몇 개월 동안 만났으나 애정표현을 하지 못했거나 친해지지 못하고 끝난 상태이다 에 응답한 집단이다. '관계형성 후 단절집단'은 ① 한 명의 이성과 서로의 애정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교제가 끝이 난 상태이다 ② 한 명의 이성과 애정을 확인하고 연인관계(혹은 약혼관계)로 되었으나 더 안정적으로 되지 않고 끝났다 ③ 공식적으로 약혼이나 결혼을 약속하였으나 파혼하게 되었다에 응답한 집단이다.

현재의 이성교제 경험수준은 3집단으로 나뉘어졌다. '애정확인전 집단'은 ① 어느 한쪽

의 호감 때문에 만남이 이뤄지는 상태이다 ② 서로가 호감을 가지고 만나지만, 어느 쪽에서도 애정을 표현하지 않은 상태이다 ③ 어느 한쪽이 사랑을 고백하고,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에 응답한 집단이다. 애정확인 후 갈등집단'은 ① 서로 애정을 확인했으나, 갈등이 많으며 더 안정적인 관계로 되지 않는 상태이다. ② 약혼이나 결혼을 약속하였으나 갈등이 많다 에 응답한 집단이다. 애정확인 후 사랑집단'은 ①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갈등이 적은 상태로, 가족들 및 친구들에게 이성파트너를 소개한 상태이다. ② 약혼 혹은 결혼을 약속하였으며 서로 신뢰하고 사랑한다 에 응답한 집단이다.

자료 분석

설문의 협조는 개인 대 개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간은 2005년 7월부터 2005년 8월 까지였다. 이성교제 경험 유무 및 경험의 수준에 따라 애정관계 행동들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 검정과 *F* 검증을 실시하였고 차이가 유의미할 경우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애정관련 행동들과 성인 애착차원간의 관계는 Person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version 12.0를 사용하였다.

결 과

이성교제 경험수준에 따른 애정관계 행동 요소의 비교

성별, 연령대별, 이성교제 경험수준에 따른 애정관계 행동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2에

서 제시하였다. 표 3에서는 20대 30대의 연령대에 따른 이성교제 경험의 유무 및 경험수준들의 빈도와 비율 그리고 χ^2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표 4에서는 이성교제 경험수준에 따른 애정관계 행동들의 평균 차에 대한 *t* 검증과 *F* 검증, 및 *Scheffe*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20대와 30대의 연령 대에 따라 애정관계 행동 요소들과 이성교제 경험들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애정관계 행동 점수들에서 연령 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성교제 경험 유무, 과거의 이성교제 경험수준, 그리고 현재의 이성교제 경험수준에서 연령 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비록 20대와 30대의 연령 대간에는 다양한 이성교제 경험에서의 양적 질적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이러한 결과는 현 연구에 포함된 이성교제 경험 문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20대 30대 연령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이성교제 경험수준에 따른 애정관계 행동들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집단은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보살핌, 호감표현, 파트너에 대한 신뢰는 높은 반면, 긴장·위축, 친밀감불편, 높은 보상성의 점수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집단이 이성교제 시 보살핌 호감표현 및 신뢰와 같은 애정 촉진적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애정관계를 해치는 행동은 보다 적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성별, 연령대별 이성교제 경험수준에 따른 애정관계 행동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애정 관계 행동	성 별			연령대		교제유무		과거교제수준			현재교제수준		
	남	여	전체	20대	30대	현재 없음	현재교제	경험 무	일시적 교제	교제후 단절	애정 확인 전	애정 확인후 갈등	애정 확인후 사랑
보살핌	3.70 (.41)	3.65 (.44)	3.67 (.43)	3.66 (.43)	3.72 (.41)	3.58 (.43)	3.76 (.41)	3.50 (.35)	3.51 (.48)	3.66 (.40)	3.66 (.39)	3.62 (.52)	3.87 (.40)
긴장·위축	2.33 (.45)	2.39 (.49)	2.36 (.48)	2.38 (.48)	2.31 (.47)	2.55 (.42)	2.17 (.45)	2.60 (.41)	2.63 (.35)	2.49 (.45)	2.43 (.45)	2.39 (.36)	2.02 (.43)
공격행동	2.31 (.55)	2.63 (.65)	2.51 (.63)	2.52 (.65)	2.46 (.57)	2.50 (.58)	2.53 (.69)	2.41 (.46)	2.46 (.55)	2.55 (.63)	2.53 (.70)	2.96 (.67)	2.48 (.69)
친밀감불편	2.48 (.72)	2.56 (.77)	2.53 (.75)	2.54 (.73)	2.50 (.76)	2.71 (.70)	2.35 (.75)	3.03 (.65)	2.89 (.61)	2.49 (.70)	2.77 (.81)	2.36 (.77)	2.17 (.73)
호감표현	2.60 (.70)	2.58 (.73)	2.59 (.72)	2.59 (.72)	2.58 (.72)	2.34 (.68)	2.85 (.66)	2.14 (.55)	2.14 (.68)	2.53 (.68)	2.57 (.66)	2.74 (.75)	3.01 (.64)
집착	2.73 (.57)	2.81 (.65)	2.78 (.63)	2.79 (.61)	2.76 (.67)	2.78 (.58)	2.78 (.67)	2.62 (.51)	2.83 (.54)	2.81 (.63)	2.78 (.74)	3.16 (.86)	2.68 (.62)
높은 보상성	2.90 (.58)	3.29 (.60)	3.15 (.62)	3.14 (.60)	3.15 (.68)	3.25 (.65)	3.04 (.57)	3.14 (.74)	3.40 (.57)	3.19 (.65)	3.23 (.64)	3.28 (.51)	2.90 (.52)
신뢰	2.85 (.60)	2.80 (.68)	2.81 (.65)	2.81 (.64)	2.84 (.67)	2.57 (.53)	3.06 (.67)	2.44 (.48)	2.49 (.53)	2.77 (.53)	2.65 (.70)	2.64 (.70)	3.37 (.53)

주. 평균(표준편차).

굵은 글씨는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검증 통계치는 표 4에서 제시됨

그리고 과거의 이성교제 수준에 따른 애정 관계 행동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집단과 일시적 교제경험 집단은 관계형성 후 단절집단에 비해 친밀감을 더 불편해 하고 호감표현은 더 적게 하며 상대방의 애정에 대해 더 의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이성교제 수준에서는, 모든 애정관계 행동들에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애

정확인 후 사랑’ 집단은 ‘애정확인전’ 집단과 ‘애정확인 후 갈등’ 집단에 비해 보살핌, 신뢰와 같은 애정관계 촉진행동의 점수는 더 높았으며 높은 보상성과 긴장·위축 점수는 더 낮았다. 그리고 ‘애정확인 후 갈등’ 집단은 애정확인전’ 집단과 ‘애정확인 후 사랑’ 집단에 비해 공격행동이 더 높았으며, 애정확인 후 사랑’ 집단에 비해 상대방에 대한 집착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령대에 따른 이성교제의 경험수준의 빈도와 비율 및 χ^2 검증치

	현재교제유무			과거이성교제수준				현재이성교제수준				
	현재 없음	현재 교제	전체	경험 무	일시적 교제	교제후 단절	전체	애정 확인전	애정 확인후 갈등	애정 확인후 사랑	전체	
연령대	20대	155 (50.0)	155 (50.0)	310 (100)	24 (17.6)	42 (30.4)	70 (52.0)	136 (100)	28 (23.5)	19 (16.0)	72 (60.5)	119 (100)
	30대	44 (53.7)	38 (46.3)	82 (100)	2 (8.0)	10 (40.0)	13 (52.0)	25 (100)	13 (44.8)	3 (10.3)	13 (44.8)	29 (100)
	전체	199 (50.7)	194 (49.3)	392 (100)	26 (16.1)	52 (32.3)	83 (51.6)	161 (100)	41 (27.7)	22 (14.9)	85 (57.4)	148 (100)
χ^2	.611(df=2)			1.762(df=2)				5.312(df=2)				

주. 빈도(비율)

표 4. 이성교제 경험수준에 따른 애정관계 행동들의 차이검증

	보살핌	긴장·위축	공격 행동	친밀감 불편	호감 표현	집착	높은 보상성	신뢰
교제유무								
<i>t</i>	4.296 ***	8.659 ***	.532	4.931 ***	7.574 ***	.143	3.319 ***	8.045 ***
집단비교 ^a	2>1	1>2		1>2	2>1		1>2	2>1
과거교제수준								
<i>F</i>	2.262	2.574	.974	11.673 ***	8.880 ***	1.765	2.775	3.730 *
<i>Scheffé</i> ^b				1,2>3	3>2,1			3>2,1
현재교제수준								
<i>F</i>	5.018 **	15.411 ***	4.207 *	8.638 ***	6.597 **	4.149 *	7.165 ***	25.558 ***
<i>Scheffé</i>	3>2	1,2>3	2>1,3	1>3	3>1	2>3	1,2>3	3>2,1

*, $p < .05$, **, $p < .01$, ***, $p < .001$

주. a. 1: 현재 교제 없음, 2: 현재 교제중.

b. 1: 교제경험 없음, 2: 짧은 교제 3: 관계형성 후 단절

c. 1: 애정확인 전, 2: 애정확인 후 갈등, 3: 애정확인 후 사랑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이성교제 경험 수준에 따라 애정관계행동에서 차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성교제의 관계깊이가 깊을수록 보

다 촉진적인 애정관계 행동을 많이 하며 방해되는 행동들을 더 적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애정관계 행동들과 애착차원 간의 관계

애착차원과 애정관계 행동요소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회피, 불안의 애착차원과 8개 애정관계 행동 간의 상관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5에서 제시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애착의 회피차원은 보살핌, 호감표현, 신뢰와는 각각 -.262, -.259, -.286의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긴장·위축과는 .218, 친밀감불편과는 .376의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불안차원은 보살핌과 -.128, 호감표현 -.280, 신뢰 -.435의 부적상관을, 그리고 긴장·

위축, 공격행동, 친밀감불편, 집착과는 .150~.461의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다음은 이러한 회피, 불안의 애착차원이 애정관계 행동요소들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애착차원들로 애정관계 행동요소들을 예측하는 중다회귀분석 stepwise 방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보살핌, 친밀감불편은 회피차원에 의해 전체변량의 각각 6.9%, 14.1%가 설명되고 있었다. 그리고 긴장·위축, 공격행동은 불안차원에 의해 전체변량의 각각 21.2%, 2.2%가 설명되었다. 특히 공격행동의

표 5. 애착의 차원과 애정관계 행동요소간의 상관

	보살핌	긴장· 위축	공격 행동	친밀감 불편	호감 표현	집착	높은 보상성	신뢰
회피	-.262 ^{***}	.218 ^{***}	.063	.376 ^{***}	-.259 ^{***}	-.013	.097	-.286 ^{***}
불안	-.128 [*]	.461 ^{***}	.150 [*]	.170 ^{***}	-.280 ^{***}	.371 ^{***}	.077	-.435 ^{***}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애착차원에 따른 애정관계 행동요소들의 중다회귀분석

	예언변인	β	R	R^2	ΔR^2	F
보살핌	1. 회피	-.262	.262	.069	.069	28.696 ^{***}
	2. 불안	.461	.461	.212	.212	105.165 ^{***}
긴장·위축	1. 불안	.150	.150	.022	.022	8.973 ^{**}
	2. 회피	.376	.376	.141	.141	64.226 ^{***}
공격행동	1. 불안	-.280	.280	.079	.079	33.297 ^{***}
	2. 회피	-.182	.328	.108	.029	23.439 ^{***}
친밀감불편	1. 불안	.371	.371	.138	.138	62.244 ^{***}
	2. 회피	-.169	.403	.162	.024	37.702 ^{***}
호감표현	1. 불안	-.435	.435	.189	.189	91.045 ^{***}
	2. 회피	-.148	.457	.208	.019	51.214 ^{***}

*: $p < .05$, **: $p < .01$, ***: $p < .001$.

경우에는 설명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감표현, 집착, 신뢰는 불안과 회피에 의해 각각 전체변량의 10.8%, 16.2%, 20.8%가 설명되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불안차원에 의해 이들 행동들이 잘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의 차원에 따라 애정관계 행동을 설명할 때 보다 많은 이득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보살핌행동과 친밀감을 불편해 하는 행동에서의 개인차는 파트너에 접근할 것인가 혹은 친밀감으로부터 도망갈 것인가라는 회피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파트너에 대해 긴장·위축 행동과 공격적 행동은 거절, 유기에 대한 예민성과 더 관련이 높은 정서적 요소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파트너에 대해 호감표현을 적게 하거나, 파트너에 집착하거나 신뢰하는 행동은 파트너의 거절, 버림에 대한 예민성 차원(불안)이 가장 중요한 차원이며, 그리고 회피적 차원 또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애정관계 행동을 불안과 회피의 애착차원으로 이해하는 시도는 애정관계 행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발판이 된다고 하겠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이성교제 행동의 특징을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이성교제 유무 및 경험수준을 애정관계를 촉진/방해하는 구체적인 애정관련 행동 단위들로 분석해보고, 이러한 애정관련 행동들과 성인 애착차원간의 관련성을 탐색하여 애정 행동들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이성교제 경험이 없거나 매우 짧은 교제만을 경험하는 등 이성교제를 잘 개시하지 못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친밀감, 호감표현 및 파트너에 대한 신뢰가 더 낮았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친밀감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가까워지려하는 일련의 행동들이다. Hatfield와 Rapson(1985)은 애정관계를 지속하는데서 열정이나 신체적 매력보다도 친밀감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성교제를 잘 개시하지 못하는 집단은 파트너에 대한 호감표현 행동이 낮았는데, 호감표현 행동은 이성교제의 개시 및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왔던 것이다. 일례로 Rubin(1973)은 이성에 관심이 높아질수록 이성에 대한 접근 행동, 이성을 응시하거나 관심을 표하거나 집중하는 행동이 증가하며, 이러한 호감표현 행동은 애정의 발전과 관계가 깊다고 보고하였다. 호감표현은 일종의 강화주기 행동으로, 파트너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관계에서 보상받는 느낌을 주게 된다(Hargie, Saunders & Dickson, 1981).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김진희(2005)의 사이버 상담분석 연구에서도 이성 교제의 시작 단계에서 사람들은 '호감표현이 어렵고 그로 인해 이성관계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들 집단은 파트너를 신뢰하는 행동이 적었다. 이러한 신뢰행동은 애정관계를 안정화 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Shaver와 Hazan(1993)에 따르면,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안양가형 애착유형은 신뢰가 의심되었던 부정적 사건에만 집착하면서 걱정에 빠지고, 자신을 속이는 것은 아닌지 파트너를 의심하고 이를 다

집반으려 하거나 미리 파트너를 떠나보낸다고 하였다.

둘째, 현재 이성교제 경험수준에서 ‘애정확인 후 사랑’ 집단은 ‘애정확인전’ 집단과 애정확인 후 갈등’집단에 비해 보살핌, 신뢰 등의 애정관계 촉진행동은 더 높지만 높은 보상성과 긴장·위축은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파트너에 안정적 애착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성교제에서 친밀감이 높고(정태연, 최상진, 강진경, 2000; Feeney & Noller, 1996), 보살핌행동을 많이 하며(Rholes, Simpson & Orina, 1999), 자율성에 대해 갈등을 보이지 않으며(Pistole, 1994), 관계에 대한 신뢰가 높다(Feeney & Noller, 1990)는 기존연구의 결과들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하겠다.

셋째, ‘애정확인 후 갈등’ 집단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 공격행동과 집착이 더 높았다. 이는 애정관계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파트너에 집착하거나 갈등해결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등 관계방해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파트너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며(안경애, 2003), 파트너는 자율성 보존을 위해 관계를 파기할 수 있다(Baxter, 1990). 하지만 이 결과를 해석할 때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결과가 파트너와 갈등하고 있는 집단의 행동특성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역으로 이 행동들이 파트너와의 갈등에 의해 파생된 좌절과 불안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에서 파트너에 대한 공격행동과 집착행동은 불안차원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 본다면 파트너에 대한 공격과 집착행동은 갈등상황에서 버려질 것 같은 불안에 의해 발생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회피 및 불안의 애착차원은 다양한 애정관계 행동들에 대해 매우 유의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Fraley와 Shaver(1998, 2000)가 주장했던 바와 같이 애착차원은 다양한 애정관계행동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보살핌행동과 친밀감불편은 파트너에 접근할 것인가 혹은 도망갈 것인가의 회피적 행동차원과 관련이 있으며, 파트너에 대해 긴장·위축되거나 공격행동을 하는 것은 거절, 유기에 대한 불안과 관련이 깊은 행동임이 시사되었다. 그리고 파트너를 신뢰하거나 호감 표현을 적게 하거나 집착하는 행동은 불안과 회피 차원 둘 다에 영향을 받고 있음이 시사되었다. 따라서 추후에는 회피와 불안차원을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애정관계행동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기를 희망한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과거와 현재의 이성교제 경험수준, 그리고 다양한 애정관계 행동들을 통합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성교제 경험과 애정관계 행동의 연구에서 회피와 불안의 애착차원의 활용도를 시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애착측정 방법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Kurdek(2002)이 언급했던 연구결과에 비해 모형 적합도가 떨어졌다. 이것은 Kurdek의 표집과 연구자의 표집간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Kurdek(2002)의 표집은 애정관계가 공고히 된 기혼자, 게이, 레즈비언이 대상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성교제를 하지 않고 있는 대상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현재 이성교제가 진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거나, 파트너를 참여시킨 연구를 수행해

불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애착차원 척도는 애착차원뿐만 아니라 애착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완벽하게 확보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 비록 연구자가 확정적 요인분석으로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는 노력을 하였지만 추후에는 Brennan 등(1998)의 척도와와의 관계성을 검증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다양한 연령 대에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점이 있다. 우선 본 연구의 표집은 20대, 학생집단에 편포된 것이었으며, 사례 수 또한 소수였다. 비록 본 연구에서 20대와 30대에 따라 이성교제 경험 및 애정관계 행동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이것은 연구에 사용되었던 문항에 한정된 결과 일 수 있다. 연령, 직업, 학력에 따라 이성교제의 경험 양과 질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연령, 학력, 직업 등의 다양한 변인들을 연구 설계에 포함시킨 연구를 수행해 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권희경, 장재홍, 권영민 (2005). 애정관계 행동 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4), 497-524.

김광은 (2004). 성인애착 유형과 요인에 따른 성격특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53-69.

김광은 (2005). 성인 애착 유형에 따른 결혼 만족도 및 부부 갈등 대처 전략.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707-734.

김광은, 이위갑 (2005). 연애관계에서 성인 애착 유형 및 요인에 따른 관계 만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33-247.

김진희 (2005). 대학생의 이성 교제에 관한 사이버 상담 사례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37-151.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학지사.

안경애 (2003). 여대생의 이성 교제 중 갈등표출 행동 유형과 영향요인. 간호과학, 15(1), 50-60.

이귀선, 정남운 (2003).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과 효과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79-793.

이복동 (2000). 이성 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 거부 민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이은정 (2001). 애착에 따른 이성 간지 행동의 차이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이현수 (2001). 성격과 행동. 학지사

정연옥, 이민규 (2005). 성인기 애착유형, 부정적 인지 왜곡 및 우울수준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1), 167-184.

장휘숙 (2002). 애착과 사랑양식 및 관련변인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4), 93-111.

장휘숙, 조현각 (2001). 대학생 이성교제 폭력의 실태와 위험요인들. 한국가족복지학, 8, 179-204.

정태연, 최상진, 강진경 (2000). 성인기 애착특성과 낭만적 사랑 및 성격특성과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5(2), 85-102.
- 홍대식 (1993). 인간관계의 심리. 양영각
- 홍대식 (1996). 한국 대학생의 사랑스타일과 이성상태 선택준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0(2), 81-110.
- 홍대식 (1998). 데이트 관계의 형성과 발전에 관련된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2), 199-226.
- 홍대식 (2000). 데이트관계의 만족과 몰입에 관련된 특징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223-262.
- Ainsworth, M. D. S. (1982). Attachment: Retrospect and prospect. In C. M. Parkes & J. L. Stevenson-Hinde (Ed.), *Attachment and dependency*. Washington, DC: Winston.
- Baxter, L. A. (1990). Dialectical contradictions in relationship developmen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69-88.
- Bartholomew, K. (1990). On the instability of attachment style ratings. *Personal Relationships*, 2, 247-261.
- Bartholomew, K., & Horowitz, L.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 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ookwala, J., & Zdaniuk, B. (1998). Adult attachment styles and aggressive behavior within dating relationship.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5, 175-190.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In A. Simpson & A.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NY: Guilford Press.
- Brennan, K. A., & Shaver, P. R. (1995). Dimensions of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and romantic relationship function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267-283.
- Collins, W. A.,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Davis, K. E., & Latty-Mann, H. (1987). Love styles and relationship quality: A contribution to valida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4, 409-428.
-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81-291.
- Feeney, J. (1994). Attachment style, communication patterns, and satisfaction across the life cycle of marriage. *Personal Relationships*, 1, 333-348.
- Feeney, J. (1995). Adult attachment and emotional control. *Personal Relationships*, 2, 143-159.
- Fraley, R. C., & Shaver, P. R. (1998). Airport separations: A naturalistic study of adult attachment dynamics in separ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198-1212.
- Fraley, R. C., & Shaver, P. R. (2000). Adult romantic attachment: Theoretical developments, emerging controversies, and unanswered question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4, 132-154.
- Fraley, R. C., & Waller, N. G. (1998). Adult attachment patterns: A test of the typological model.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New York: Guilford Press.

- Frazier, P., Byer, A., Fischer, A., Wright, D., & DeBord, K. (1996). Adult attachment and partner choice: Correlational and experimental findings. *Personal Relationships*, 3, 117-136.
- Griffin, D. W., & Bartholomew, K. (1994). Model of the self and Other: Fundamental of the self and Dimensions Underlying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3), 430-445.
- Hargie, O., Saunders, C., & Dickson, D. (1981). *Social skills i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ambridge: Brookline Books.
- Hatfield, E., & Rapson, R. L. (1985). Gender differences in love and intimacy: The fantasy vs. the reality. In H. Gochros and W. Ricketts(Eds.), *Social work and love*. New York: Hayworth Press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endrick, C., & Hendrick, S. S. (1989). Research on love: Does it measure 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784-794.
- Hindy, C. G., Schwartz, J. C., & Schwartz, J. C. (1994). Anxious romantic attachment in adult attachment. In M. B. Sperling, & W. H. Berman(Eds), *Attachment in adults*. NY: The Guilford Press.
- Kirkpatrick, L., & Davis, K. (1994). Attachment style, gender, and relationship stability: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502-512.
- Kirkpatrick, L., & Hazan, C. (1994). Attachment styles and close relationships: A four-year prospective study. *Personal Relationships*, 1, 123-142.
- Kobak, R., & Hazan, C. (1991). Attachment in marriage: Effects of security and accuracy of working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861-869.
- Kobak, R., & Duemmler, S. (1994). Attachment and conversation: Toward □ discourse analysis of adolescent and adult security. In K. Bartholomew & D. Perlman(Eds.),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London: Kingsley.
- Kurdek, L. A. (2002). On being insecure about the assessment of attachment styl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9, 811-834.
- Levy, M. B., & Davis, K. E. (1988). Lovestyles and attachment styles compared: Their relations to each other and to various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 439-471.
- Loyd, S. A., & Cate, R. M. (1985). The developmental course of conflict in dissolution of pre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 755-773.
- Maxwell, G. M. (1985). Behavior of lovers: measuring the closeness of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 215-238.
- Peele, D., & Brodsky, A. (1976). *Love and addiction*.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 Pistole, M. C. (1994). Adult attachment styles: *Some thoughts on closeness-distance struggles*, *Family Process*, 33, 14-159.

- Rice, F. P. (1999). 청소년심리학. 정영숙, 신민섭, 설인자역. 시그마프레스. 2001. *The Adolescent: Development, Relationship, and Culture*. Allyn & Bacon.
- Rholes, W. S., Simpson, J. A., & Orina, N. M. (1999). Attachment and anger in an anxiety-provoking sit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940-957.
- Rubin, Z. (1973). *Liking and loving: An invitation to social psycholog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Shaver, P. R., & Hazan, C. (1993). Adult romantic attachment: Theory and evidence. *In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 Vol. 4*, John W. H., & Perlman, D.(Eds). *Jessica Kingsley*: London; 29-70.
- Wenzel, A., Graff-Dolezal, J., Macho, M., & Brendle, J. R. (2004). Communication and social skills in socially anxious and nonanxious individuals in the context of romantic relationship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3, 505-519.

원 고 접 수 일 : 2005. 12. 17

수정원고접수일 : 2006. 1. 11

게 재 결 정 일 : 2006. 2. 2

K C I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dimensions and Romantic Behaviors

Jae-Hong Jang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dimension - avoidance, anxiety - and romantic behaviors. I also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romantic behaviors.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392 single males and females. Their age ranged from 20 to 42.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eople who had little romantic experiences in the past showed higher avoidance score than those who had romantic experiences. Second,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showed that care-giving and discomfort of intimacy were anticipated by avoidance; tension • constriction was anticipated by anxiety; deficit of positive expression, preoccupied behavior, and distrust were anticipated by both avoidance and anxiety.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various romantic behaviors were well understood through attachment dimension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romantic relationship, attachment dimension, avoidance, anxiety